

제 ①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성 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 다음에 해당하는 말하기의 유형은?

공동의 관심사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말하기

- ① 강연하기 ② 소개하기 ③ 토론하기 ④ 토의하기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언어의 특성은?

언어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소리와 대상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늘’이라는 대상을 우리말에서는 ‘하늘 [하늘]’로, 영어에서는 ‘sky[스카이]’로 표현하는 것처럼 각기 다른 말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그 예이다.

- ① 규칙성 ② 자의성 ③ 정확성 ④ 중의성

3. 밑줄 친 단어 중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 ① 공원에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② 그는 현 운동화를 깨끗이 빨았다.
③ 운동을 하니 온갖 걱정이 사라졌다.
④ 옛날 어떤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다.

4.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문장 성분이 같은 것은?

<보기>
언니가 꽃다발을 샀다.

- ① 동생이 식혜를 마신다.
② 소년은 어른이 되었다.
③ 우리는 식당으로 갔다.
④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린다.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는?

‘밤나무’는 ‘밤+나무’, ‘밤송이’는 ‘밤+송이’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어근+어근’으로 구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 ① 개살구 ② 봄바람 ③ 풋사랑 ④ 헛소문

6. 다음 규정이 적용되는 예가 아닌 것은?

표준 발음법 제5장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ㄸ, ㅌ, ㄴ, ㄹ, ㄺ, ㄻ, ㄼ, ㄽ,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ㅠ)’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① 국물 ② 등불 ③ 앞마당 ④ 옷맵시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http://www.ooo.oo.kr

자유 게시판

배경 음악

제목

㉠월을 저녁 장기 자랑 시간에 친한 친구들과 노래를
㉡불렀다. 우리 노래가 끝나자 친구들이 박수를 많이
쳐 줘서 참 ㉢조았다. 친구들과 장기 자랑했던 기념으로
사진도 찍었다. 이번 장기 자랑은 ㉣증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 솜사탕 너희 정말 잘 부르더라. 최고였어!

↳ 무지개 정말? 고마워!

↳ 번개 와! 초대 가수가 나온 줄 알았어!

↳ 딸기 네가 칭찬을 해 주니 정말 좋다!

7. 밑줄의 안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라진 기념사진
② 행복한 가족 여행
③ 장기 자랑의 추억
④ 싸움으로 끝난 노래자랑

8. ㉠~㉣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쓴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월요일
② ㉡: 불렀다
③ ㉢: 조았다
④ ㉣: 정말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내 ㉠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B]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C] 내가 바라는 ㉡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D]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흠뻑 적셔도 좋으련.

㉢ 아이야 우리 ㉣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련.

- 이육사, 「청포도」 -

9.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다.
- ② [B]: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 있다.
- ③ [C]: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 ④ [D]: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고 있다.

10. ㉠~㉣ 중 화자가 기다리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1. 흰 돛단배에 쓰인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 ①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② 박꽃이 하얗게 필 동안
- ③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
- ④ 입술이 꺼멥게 숯을 바르고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뱃]이 몇이고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구름 빛이 깨끗타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때가 많구나.
깨끗고 그칠 적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찌하여 푸르는 듯 누렇게 되니
아마도 변치 아니하기는 ㉠ 바위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땅 깊이 뿌리 곤은 줄을 그로 하여 아노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고.
저렇게 사철에 푸르니 ㉢ 그를 좋아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밝은 빛이 ㉣ 너만 한 게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 윤선도, 「오우가」 -

12. 위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 ① 한 행을 4음보로 구성한다.
- ② 후렴구를 각 연에 배치한다.
- ③ 의성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 ④ 각 연의 처음과 끝에 같은 구절을 배치한다.

13. 위 시에 드러난 ㉠~㉣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변하지 않는다.
- ② ㉡: 쉽게 시든다.
- ③ ㉢: 사계절 내내 푸르다.
- ④ ㉣: 만물을 다 비춘다.

14. 위 시의 [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물 ② 바위 ③ 국화 ④ 소나무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원미동 23통 일대에 쌀과 연탄만 취급하던 김포 쌀 상회의 경호네 내외가 가게 상호를 ‘김포 슈퍼’로 바꾸었다. 그러자 채소와 과일을 팔던 형제 슈퍼의 김 반장도 쌀과 연탄을 가게 앞 공터에서 취급하게 되고 두 가게는 살벌한 가격 경쟁을 벌인다. 두 가게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동네 사람들이 고민에 빠질 무렵 갑작스럽게 싱싱 청과물이 개업을 한다. 며칠 후 경호네와 김 반장이 싱싱 청과물에 대해 휴전 협정을 맺었다는 소문이 동네 안에 짙 퍼졌다.

[A] 싱싱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손님이 있으면 김 반장은 어디서 구해 왔는지 뽀뽀거리는 핸드 마이크를 쳐들고 횡방을 놓았다.

“과일 바겐세일입니다. 조생 굴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금방 올라온 맛 좋은 부사 사과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자, 과일 바겐세일!”

어떤 때는 김포 슈퍼를 선전해 주기도 하였다.

“과일 세일합니다. 사과, 배, 굴 모두 세일합니다. 저쪽 김포 슈퍼로 가시든가 여기로 오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몽땅 세일합니다요.”

싱싱 청과물 사내가 김 반장한테 쫓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싸움은 초반부터 싱싱 청과물 사내가 불리한 쪽에 있었다. 생각 없이 대뜸 내뿜은 첫말이 당장 김 반장의 공격망에 걸려 버린 것이다. 나이가 어리다 하여 만만히 여기고 다짜고짜 말을 놓은 게 실수였다. 싱싱 청과물 사내가 말꼬리를 붙잡혀서 정작 장사를 횡방한 것에 대해서는 따질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전전공공하고 있을 때, 경호 아버지가 싸움에 끼어들었다. 이때다 싶었던지, 물리고 있던 싱싱 청과물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 말야, 왜 어깃장을 놓아? 가격이야 뻔한데 본전 치기로 넘기면서 남의 장사 망쳐 놓는 속셈이 대관절 무엇이야? 영! 왜 못살게들 굴어?”

경호 아버지도 어름하게 물러서지는 않았다.

“짜게 사서 짜게 파는 것도 죄요? 원 별소릴 다 듣겠네.”
얼굴이 벌개진 싱싱 사내는 공연스레 목청만 돋운다.

“이 사람들, 이제 보니 심보가 새까맣군그래. 짜게 사서 짜게 파는 것도 죄냐구? 말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냐? 날 죽여 보겠다는 심보는 대체 뭐야!”

그러면 김 반장이 또 씹씹거리며 대들었다.

“이게 좁쌀밥만 먹고 살았나? 말마다 영 기분 나쁘게시리 반말로만 내뱉는군. 단단히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작자라니까.”

마침내 싱싱 청과물 사내가 죽기 살기로 김 반장의 멱살을 잡고 바둥거리기 시작했다. 몸피가 유난히 왜소하여 애초 김 반장의 상대가 되지도 못하면서 기를 쓰고 덤벼드는 그를 김 반장은 여유 있게 메다꽂았다. 이 못된 놈이 사람 친다고 악을 쓰면서 덤벼드는 그를 향해 김 반장은 알게 모르게 주먹 솜씨를 발휘하였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생전 보지도 못한 놈이 남의 장사 망치려고 덤벼든 것을 생각하면 내 속이 터진다구.”

㉠ 김 반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다.

… (중략) …

“김 반장도 끝을 보는 성격인데 심상찮아.”

많은 식구 거느리고 살다 보니 자연 악만 남았다는 김 반장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이웃인 지물포 여자의 근심 어린 걱정도 나왔다.

“왜들 이렇게 장삿길로만 빠지는지 몰라.”

우리 정육점 여자의 우문이었다.

“먹고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요.”

새댁이 즉각 현명한 답을 내놓았다.

그러고는 잠시 말이 끊겼다. 매일매일을 살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원미동 여자들 모두는 각자 심란한 표정이었다.

-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제시된다.
- ② 힘겹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이 나타난다.
- ③ 인물 간의 대화를 활용하여 사건을 전개한다.
- ④ 이웃 간의 배려와 화합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16. [A]에서 김 반장의 행동에 담긴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 ② 가게 앞 공터를 차지하기 위해서
- ③ 지물포 여자와 동맹을 맺으려고
- ④ 싱싱 청과물의 장사를 방해하려고

17. ㉠에 쓰인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것은?

- ① 아아, 누구던가
- ② 저것 봐, 저것 봐
- ③ 얼마나 아름다운가
- ④ 길은 구겨진 벅타이처럼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형은 길을 재촉하여 열흘 만에 경상 감영에 부임하였다. 고을마다 방을 붙이고 인형은 오직 길동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며칠 후 한 소년이 감영 앞까지 나귀를 타고 와 감사 뵈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인형이 이상히 여겨 들여 보내라 하니, 소년이 마루에 올라 인사를 올렸다.

“제가 여기 온 것도 아버님과 형님을 위태로운 지경에서 구하고자 함입니다. 하오나 당초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었던들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말해 무엇하오리까? 이제 저를 묶어 한양으로 보내소서.”

그런 다음 입을 꼭 다물더니 묻는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경상 감사 인형은 이윽고 제 아우 길동의 목에 칼을 썬우고 발에 차꼬¹⁾를 채웠다. 그리고 길동을 잡았다는 장계를 적어 서둘러 한양으로 보냈다.

… (중략) …

“내가 여기까지 순순히 잡혀 오고 전하께서도 내가 끌려 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므로 너희가 큰 벌을 받지 않는리라.”

그런 다음 길동이 몸을 흔드니 쇠사슬이 썩은 동아줄처럼 툭툭 끊어지고 함거²⁾가 우지끈 부서졌다. ㉠ 그리고 순식간에 공중으로 훌쩍 몸을 솟구쳐서 궁수들이 미처 손을 쓸 틈이 없었다. 궁수들은 그저 길동이 공중에서 까마득하게 멀어질 때까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 허균, 「홍길동전」 -

1) 차꼬: 죄수를 가두어 둘 때 쓰던 기구.

2) 함거: 예전에, 죄인을 실어 나르던 수레.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시제로 서술되고 있다.
- ② 당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19.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 ① 인형은 경상 감영에 부임했다.
- ② 길동은 관직을 얻은 형을 축하했다.
- ③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
- ④ 인형은 길동을 잡았다는 소식을 한양으로 보냈다.

20. ㉠에서 길동이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 ① 부유한 재산 ② 비범한 능력
- ③ 타고난 외모 ④ 조력자의 도움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진 **임금** 성종의 다스림 아래 안정을 찾아 가던 고려에 크나큰 위기가 닥쳤다. 993년(성종 12년)에 거란족이 쳐들어 온 것이다. 거란군 책임자 **소손녕**은 봉산군을 ㉠점령한 다음 고려에 문서를 보내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다.

…(중략)…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가 차지했는데 당신네가 이를 조금씩 먹어 들어왔소. 또 우리나라와 땅이 이어져 있는데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니, 만일 땅을 떼어서 바치고 황제에게 알현할¹⁾ **사신**을 보내면 무사할 것이요.”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협박이었다. 이에 **서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소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고, 평양에 도읍하였소. 만일 ㉢국경을 따진다면 귀국의 동경도 모두 우리 국경 안에 있던 것인데 어찌 조금씩 먹어 들었다고 할 수 있겠소? 그리고 압록강 안팎도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흠쳐 살고 있소이다. 교활하고 간사한 그들이 통로를 막아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에 황제를 알현 못 하고 사신을 보내지 못하고 있소. 만일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찾아 성보(城堡)²⁾를 쌓고 길이 통하면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소. 장군이 만일 ㉣나의 말을 전해 천자께서 들으신다면 어찌 가엾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으리요.”

거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의 입장을 설명한 **현답**³⁾이었다. 한편으로는 거란에게 회군할 명분을 주는 말이기도 했다. 결국 소손녕은 거란 임금과 상의한 뒤 너그러운 척 고려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철군을 결정했고, 서희는 당당히 개선했다. 소손녕은 서희의 조리 있는 말과 당당한 태도에 감격하여 낙타와 말, 양 등 많은 가축과 비단을 선물하고 돌아갔다.

- 박영수, 「서희의 대담한 외교술」 -

- 1) 알현하다: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뵈다.
- 2) 성보(城堡): 적을 막으려고 성 밖에 임시로 만든 소규모의 요새.
- 3) 현답: 현명한 대답.

21. 윗글에서 서희의 협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란에게 회군할 명분을 주었다.
- ② 소손녕의 협박에 조리 있는 말로 대응하였다.
- ③ 거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 ④ 고려에 항복하지 않으면 거란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였다.

22. 중 ㉦와 동일한 인물은?

- ① 임금
- ② 소손녕
- ③ 사신
- ④ 서희

23.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남의 땅을 무력으로 빼앗아 차지하는 것.
- ② ㉡: 군대를 싸움터로 내보내는 일.
- ③ ㉢: 나라의 경사.
- ④ ㉣: 주둔하였던 군대를 철수함.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 정광 대다라니경 두루마리. 석가탑 사리함 안 비단보에 싸여 있던 그 두루마리는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한 한지로 만들어졌다.

…(중략)…

한지(韓紙)란 주로 닥나무 껍질에서 뽑아낸 섬유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제조법으로 만든 종이를 이르는 말이다. 조히(종이), 조선종이, 창호지, 문종이, 참종이, 닥종이 등으로 불렸던 우리 종이가 한지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중반, 서양 종이, 즉 양지(洋紙)가 들어와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중략)…

한지를 창호지로 쓰면 문을 닫아도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를 잘 흡수해서 습도 조절의 역할까지 한다. 흔히 한지를 ‘살아 있는 종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지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습기에 대한 친화력도 한지에 비해 약하다. 한지가 살아 숨 쉬는 종이라면, 양지는 뻣뻣하게 굳어 있는 종이라고 할 것이다.

- 김형자, 「천년을 가는 한지의 비밀」 -

2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지는 양지에 비해 바람이 잘 통한다.
- ② 한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조법으로 만든 종이다.
- ③ 무구 정광 대다라니경 두루마리는 비단으로 만들어졌다.
- ④ 우리 종이를 한지라고 부른 것은 20세기 초·중반부터이다.

25.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면
- ② 비록
- ③ 그래서
- ④ 드디어

※ 확인 사항

답을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